

② 하반기 양계업 전망

>>> 2008년 하반기 채란업 흐름과 전망

노계도태 지연에 따른 물량증가로 큰 호황 기대 어려워



이 흥 열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장

1. 상반기 흐름 분석

채란업계가 2007년도 하반기부터 바이오 연료 수요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폭등이 국내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생산원가는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적절히 반영이 안 되어 계란 산지가격의 인상폭이 낮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계란 산지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설을 맞이하여 2월 중순이후 계란의 가격이 주춤하다가 3월초부터 단체급식의 수요증가와 부활절로 인한 계란의 소비가 증가하여 계란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1/4분기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8년 4월 1일부터 HP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김제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8년 5월 하순까지 AI와 관련된 언론보도 이후 가금산물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가금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가금류도 약 900여만 수가 살처분 되었다. 또한 곡물 및 석유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금산물의 생산원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닥의 희망은 가금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면 산지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2008년도 상반기 암흑의 터널 속을 보내고 나서 올 하반기 채란업을 전망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금업계의 한 가닥 희망을 갖고 하반기 채란업계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상반기 산란계 흐름을 살펴보자. '08년 3월 산란계 총 사육수수는 5,785만 수로 '07년 12월 5,609만 수보다 176만 수로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7년 3월 5,652만 수였는데 동기기간보다는 133만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용 마리수는 '08년 3월 6개월령 이상이 4,488만 수로 '07년 12월 6개월령 이상인 산란용 마리수는 4,346만 수보다 143만수가 증가하였다(표1).

'08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란의 산지가격이 상승한 것은 질병 등의 발생으로 생산량의 감소 및 산란노계가 많아 생산성이 떨어져 전체 계란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약간은 있지만 그 보다도 사료가격 및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요인이 산지 및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되었을 뿐이며 공급량이 줄었든가 수요량이 증가하였든가 하는 것이 아닌 상황으로 시장원리가 작용하여 계란의 산지가

격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시장원리가 반영되어 산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1에서도 보듯이 계란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6개월령 산란용 마리수는 '05년 9월부터 '08년 3월 까지 4천만 수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계란의 산지가격을 보면 생산비를 밀도는 수준에 거래가 되었다(표2). 참고적으로 2007년도 계란생산비는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계란 10개를 기준하여 880원과 2006년에는 853원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사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06년과 '07년 비교하였을 때 27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당 약 3,000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6월의 산지가격은 5월과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농축산물은 생산원가도 중요하지만 신선도 유지와 보관 등에 의한 상관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소비에 따른 생산량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요인을 분석해 보면 산란계 전체적으

표1. 년도별 산란계 마리수

(단위 : 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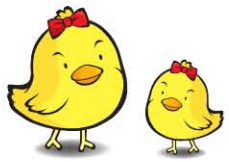
구분	'05.9	12	'06.3	6	9	12	'07.3	6	9	12	'08.3
3개월 미만	6,831	4,819	5,431	6,292	6,417	6,219	6,408	6,739	6,093	5,594	6,320
3~6개월 미만	8,118	7,061	5,491	6,388	5,971	6,725	6,046	6,314	6,216	7,032	6,641
6개월령이상	40,068	41,512	42,595	42,520	43,000	44,292	44,071	43,489	42,808	43,466	44,889

표2. 계란 산지가격

(단위 : 원, 특란10개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984	1,019	1,094	1,068	1,012							
07년	724	722	728	726	768	758	698	761	854	859	877	965
06년	829	699	773	789	781	816	820	859	949	860	787	716
05년	1,276	1,293	1,315	1,308	1,206	1,080	989	878	957	822	778	818

자료 : 농협, 축산물가격정보



② 하반기 양계업 전망

로는 산란계 사육수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여기에서 계란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6개월령 이상인 산란용 마리수가 많은 것도 산란계 흐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산란용 마리수가 많은 이유는 노계의 도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란계 사육수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07년 12월 산란계 사육농가 수는 1,831농가에서 '08년 3월에는 1,814농가로 가구당 평균 산란계 사육수수는 3만2천수로 규모화 되어 가구당 평균 사육수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규모화로 인한 산란계 사육수수의 증가 및 노계도태의 지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계란의 생산증가는 물론 노계로 인한 계란의 품질을 떨어 뜨려 결국은 소비자로 하여금 계란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노계를 도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하반기 흐름과 전망

2008년 4월 HP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수는 약 360만 수가 되었는데 3월 총 산란계 사육수수에 대비하여 약 6%가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6월에는 전체 산란계사육수수는 약 2~3%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노계도태 지연과 4월, 5월, 6월에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의 증가로 인하여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상반기까지 산란계 호황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산란계에 많은 시설 투자에 따른 신축과 증축을 통한 산란계 총사육수수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소규모 농가의 사업 중단과 대규모 농가의 규모 확대가 가속화 되었다. 여

기에 따라서 산란계사육수수는 5,600만 수에서 5,700만 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사육수수가 유지되어 산란계의 과잉생산이 예고되었다. 또한 6개월령 산란용 마리수는 4,200만 수에서 4,400만 수로 유지를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입식 증가보다는 노계 도태 지연으로 수수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노계로 인한 계란의 생산성은 하락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안전성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산란계에 항생제 잔류검사를 통하여 사용을 규제하다보니 항생제 사용 자제로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계란의 과도한 체화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계란의 대량구매처인 대형할인점들의 잦은 할인행사로 인하여 계란의 소비를 촉진시켜왔는데 유통손실은 납품업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생산비 이하의 산지가격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왔다.

하반기 계란생산동향을 살펴보면 1월부터 계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08년 1월부터 4월까지 노계 도태수수 6,342천 수 되었으며 전년 동기간에는 7,604천 수에 대비하여 1,262천 수가 줄어든 도태수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노계의 도태가 지연되고 있으며 1월부터 5월까지 병아리입식수수는 15,724천 수와 전년 동기간 12,187천 수에 대비하여 3,537천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란계사육수수의 증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표3, 표4).

5월의 산란 노계 도태수수를 2,000천 수로 가정하고 4월부터 HPAI로 인한 산란 실용계 살처분 마리수수 약 4,000천 수를 감안하여 합하면 6,000천 수로써 5월 산란용 마리수 추정치는 약 56,000천 수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표3.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동향

(단위 : 천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857	2,787	3,151	3,469	3,460							
07년	2,592	2,188	2,461	2,581	2,365	2,194	2,486	2,493	2,494	3,039	2,709	2,236
06년	2,050	2,654	2,752	2,288	2,637	2,523	2,390	2,693	2,508	2,415	2,311	2,351
05년	2,588	2,138	2,013	2,920	3,190	2,351	2,662	2,622	1,809	1,943	1,931	1,981

자료 : 대한양계협회

표4. 산란 노계 도태동향

(단위 : 천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1,692	1,166	1,940	1,544								
07년	1,574	2,171	1,892	1,967	1,525	1,700	1,664	1,182	1,217	1,555	1,410	1,200
06년	2,079	2,014	1,298	1,992	1,588	1,511	1,198	1,039	1,471	1,691	1,660	1,927
05년	1,439	1,741	1,697	1,469	2,012	2,069	1,653	1,323	1,408	1,762	1,542	1,649

참고사항 : 4~5월 HPAI산란계 살처분 수수는 약400만수로 추정
자료 : 대한양계협회

렇다면 6월부터 사육수수는 입식과 노계도태만 파악하면 전체 산란용 마리수수의 추정이 가능하는데 2004년도의 HPAI이후 호황에 대한 기대심리와 병아리수요증가로 인한 병아리 및 중추가격이 상승하고 사료가격인상 등이 농가의 비용부담 증가에 따라 노계의 도태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입식수수의 증가로 인한 산란용 마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7월, 8월 등 하반기 산란계 사육수수는 5천5·6백만 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살처분으로 인한 6개월령 이상의 사육수수는 3월 44,889천 수에서 41,000천 수에서 42,000천 수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9월까지 유지되고 9월 이후에는 1월부터 5월 입식된 병아리의 산란가담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계란생산량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10월부터 년도말까지 계란가격은 사료인상분이 일부 반영되는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변수는 질병

의 발생에 따른 소비감소가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사시사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질병관리가 농가의 소득을 좌지우지 할 것이므로 차단방역이 더욱더 중요하다.

소비동향은 사료가격 및 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잦은 할인행사는 많지 않고 산발적인 할인 행사와 소규모 할인행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할인행사에 따른 산지가격이 오른다든가 하는 현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여 친환경계란 및 등급계란 등의 세척계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자사상품정책(PB, PL)으로 인한 소비자가격은 NB브랜드상품(예. 풀무원, 오투기, CJ 등)에 대비하여 30~40%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납품마진은 줄어들게 되므로 생산자 및 납품업자는 품질경쟁력을 통한 원가절감과 비용절감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양계**